

ST-에릭슨과 삼성, 중국 소비자들이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

ST-에릭슨, 삼성의 첫 하이엔드폰에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삼성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스위스 제네바, 2009 년 6 월 9 일 - ST-에릭슨과 중국 자회사인 T3G 는 최근 출시된 삼성의 하이엔드급 휴대폰인 “에메랄드폰 (GC-I6320C)” 에 처음으로 TD-HSDPA 및 EDGE 플랫폼을 공급함으로써 삼성전자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이로써 중국 소비자들은 멀티미디어폰에서 고속 모바일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된다.

ST-에릭슨의 회장 겸 CEO 인 알랭 듀테일 (Alain Dutheil)은 “이번 삼성 에메랄드폰의 출시는 중국의 TD-SCDMA 기반 데이터 서비스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ST-에릭슨과 삼성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소비자들은 휴대폰으로 중국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심분 활용하여 차별화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에릭슨의 멀티미디어 플랫폼 T7210 은 삼성이 중국 시장에 출시한 다기능의 스타일리시한 “에메랄드폰 (GC-I6320C)” 을 구동한다. 삼성 에메랄드폰은 하이엔드급 TD-HSDPA/EDGE 듀얼 모드, 듀얼 밴드 휴대폰으로 최대 2.8Mbps 속도의 다운링크를 지원한다. ST-에릭슨 플랫폼은 유연한 듀얼 모드 설계로 EDGE 와 TD-HSDPA 네트워크 간의 자동 핸드오버를 원활하게 실현하여, 네트워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설계로 소비자들은 널리 보급되어 있는 EDGE 커버리지를 활용해 중국 전역에서 높은 품질의 음성 통화 서비스를 즐기면서 동시에 해당 범위 내에서는 TD-HSDPA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속도로 인터넷 검색, 비디오 스트리밍, GPS 기반 위치 확인, 소셜 네트워크 접속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보도자료

6월 9일

T7210 솔루션은 TD-SCDMA 듀얼 밴드 2010-2025MHz/1880-1920MHz 주파수를 지원하며, 중국 듀얼 밴드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음성 및 고속 데이터 서비스 핸드오버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편집자를 위한 정보

ST-에릭슨의 T7210 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stericsson.com/platforms/t3g7210.js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에릭슨 관련정보

ST-에릭슨은 다양한 모바일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모바일 플랫폼과 최첨단 무선 반도체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 기업이다. ST-에릭슨은 최고 단말기 제조업체의 주요 공급업체이며, ST-에릭슨의 제품 및 기술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50% 이상의 휴대폰에 적용되고 있다. 8000 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ST-에릭슨은 2008 년 약 36 억 달러의 예상 수익을 창출하였다. ST-에릭슨은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에릭슨의 50 대 50 의 합작투자로 2009 년 2 월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stericsson.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Media Relations

Phone : +41 22 930 27 33

Email: media.relations@stericsson.com

Investor Relations

Phone: +41 22 9296973

Email: fabrizio.rossini@stericsson.com